

찰간을 꺾어버리는 도리까지 참구하라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해인총림 방장

가섭에게 아난이 물었습니다. "세존께서 사형에게 금란가사를 전하셨다고 하는데, 그 외에 특별히 따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그러자 가섭이 말했습니다. "아난이여!"

가섭이 부르는 소리에 아난은 대답했습니다.

"에!"

이에 가섭은 다시 말했습니다. "문간에 있는 찰간(刹竿)을 꺾어버려라." (중략)

지열한 정진 속에서 해제를 맞이하여 제대로 안목이 열린 남자라면 '문간에 있는 찰간(刹竿)을 꺾어버려라'는 말까지도 본래 쓰러뜨리고 말고 할 찰간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금으로 금을 바꿀 수 없고 물로 물을 씻을 수 없는 도리인 까닭입니다. 만일 가섭과 아난이 서로 전한 것이 있거나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생사(生死)의 흐름

에 쓸려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공안이 없었다면 잠으로 모두가 생사를 받느라고 요란했을 것입니다.

어김없이 봄이 오고 다시 해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존의 금란가사' 공안을 결망에 지고 천하를 주유하면서 '찰간(刹竿)을 꺾어버려라'는 그 도리까지 함께 참구하고 또 참구할 일입니다.

빙소하북안(冰消河北岸)하고 화발수남지(花發樹南枝)로다. 이 얼음은 강 북쪽 언덕에서 녹고 꽃은 나무 남쪽가지에서 핀다.



분별심 버리고 본참공안 참구를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이신 백은혜학(白隱慧鶴) 선사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백은선사는 눈 밝은 지도자를 못 만나 선관책진(禪關策進)을 스승으로 삼고 열심히 공부해서 깨쳤으나 인가해 줄 스승이 없었다. 토굴앞에 흐르는 시냇물을 보고 내가 만일 바로 깨쳤으면 거꾸로 흘러가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보고 깨쳤다는 자신을 얻고 나서 중횡무진(縱橫無盡)으로 법문을 설하고 다니다가 어떤 거사를 만났는데 거사가 하는 말이 스님이 정말 깨쳤거든 손 하나만 가지고 소리를 내보라고 하자 할 말이 없었다. 스님은 그 후 피나는 노력으로 다시

정진을 하던 중 처마 밑 아궁이에서 군불을 때게 되었는데 마침 비가 오자 처마 밑에 반신(半身)은 마르고 처마밖에 반신은 비에 젖는 것을 보고 크게 깨쳤다. 그 후 스님은 적수포대(隻手布袋) 손 하나만 들고 있는 포대화상을 많이 그래서 공부하는 이들을 격려했다고 한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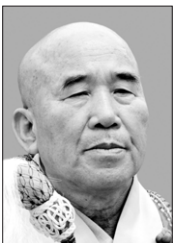
금일대중은 이 법문을 듣고 언하에 깨닫지 못했거든 분별심으로 헤아려 알고서 하지 말고 본참공안(本參公案)만 열심히 참구하라

금생에 깨치지 못하면 나를 먹여주고 입려준 시주의 은혜를 언제 갚겠는가

아운조사께서 자경(自警)에 금생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 물도 빛이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무수원자상고지(無首猿子上枯枝)로다. 머리없는 원숭이 새끼가 마른 나무가지로 올라가는구나.

설산수도의 자세로 정진하라



원명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설후시지송백조(雪後始知松栢操)요. 사난방견장부심(事難方見丈夫心)이로다

눈이 내린 뒤야야 송백의 지조를 알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누가 장부인지 알 수 있다.

벌써 구십일의 안개가 지나 해제 날을 맞았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결제를 하고 해제를 합니까? 진정으로 마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대중들이 각자 한 입씩 생활을 씹었습니다. 얼마나 물러졌는지는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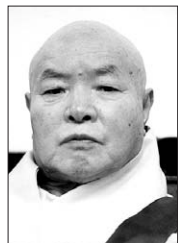
고인의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혹독한 추위를 지내봐야 어느 것이 군자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대중

들은 분명 마음속에 설산수도의 자세로 정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해제하는 대중들은 수행자의 지조를 지냈을 것입니다.

생활같은 공부가 조금 물러졌다고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에 다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윌하게 하라는 말을 간곡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제니 해제니 하는 말은 지혜롭게 완급을 잘 조절하라는 뜻이지 놓아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략)

해제하고 나서는 대중들은 당당하게 본분을 향해 나아갔다가 영축산으로 다시 돌아와 살피고 맛난 향기로운 풀만 먹는다는 백우처럼 참 선지식이 되어 인연의 스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략)

다시 발심하고 새 결제 할 때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해제가 됐다고 어떻게 방심(放心)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해제라고 하는 것은 생사영단(生死永斷)해야만 해제인데, 생사영단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해제할 것이 아니라, 해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사영단해서 성불(成佛)할 경지에 올라가야 해제지.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제나 말이야. 해제했다고 모두가 결망 짊어지고 제 맘대로 방심을 한다고 하면 그건 해제가 아니야.

해제하고서도 내가 참학(參學)하는 일을 마치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서 다시 발심을 해야 하고, 다시

새 결심을 해 가지고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지. 해제가 바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날이다 이 말이야. 해제한다고 마음 놓지 말고 여기서 다시 마음을 돌려매 가지고 다시 발심해서 새 결제를 해야 돼.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덕숭산의 기반처럼, 성불(成佛)의 기쁨이 움직이지 않고 꾸준히 그대로 정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조금이라도 방심을 해서 안 됩니다.

도화우후경낙하(桃花雨後零落下) 영득일계류수홍(榮得一溪流水紅) 복승아꽃이 비 온 뒤에 떨어지는데 계속 흐르는 물이 붉게 물들었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하략)

수행자의 본분사를 깨달아야



지중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달마(達磨)는 부래동토(不來東土)하고 이조(二祖)는 부양서천(不往西天)이라 인인벽립(人因壁立)이다

만인(人人壁立萬仞)이요 개개상광현전(個個常光現前)이로다. 대중(大眾)은 환지락처마(還知落處塵)야 악야미지(若也未知)인댄 간취고인갈등(看取古人嘉謨)하라.

거(擧) 취암(翠巖)이 동말(冬末)에 시중운(示衆云) 일동이래(一冬以來)에 유행제설화(爲兄弟說話)하니 간취암미모재마(看翠巖眉毛在麼)야 보복은작적인심허(保福云作賊人心虛)니라 장경운(長慶云) 생어(生也)라 운문운(雲門云) 관(關)이라 하니 태허요곽만취삼연(太虛寥廓萬象森然)하고 정안동명직호부립(正眼洞明纖毫末)이라 고준처조사 막근(孤峻處祖師莫近)하며 탐이쳐인천공지(捉麈處人天共知)로다.

양구 운(良久 云) 천성부전미묘결(千聖不傳微妙訣)하고

학봉고정유인행(鶴峯孤頂有人行)이로다. 초조 달마 스님은 동토 중국에 오지 아니하고 이조 해가는 서천 인도에 가지 아니하였다. 사람 사람이 우뚝한 벽만길이고, 날날이 항상 광명을 현전하도다. 대중은 도리어 구경의 입장을 아는가? 만일 알지 못하면 고인의 길등을 깨달으라.

드노니 취암 스님이 동안거의 종말에 대중에게 말하기를 "한 겨울 동안 형제를 위하여 법문 하였으니, 보아라 취암의 눈썹이 있는가?"

보복 스님이 말하기를 "도적의 마음은 거짓 속임수이니라." 장경 스님이 말하기를 "나왔다." 운문 스님이 말하기를 "꼭 가두었다" 하니, 허공은 텅 비었으나 만물이 죽어 있고 바른 눈이 환출히 밝아오가는 털도 있지 아니하다. (중략)

감히 대중에게 묻노니, 어떤 것이 본분사이고,

"천이나 되는 성인도 미묘한 비결을 전하지 아니하고 백학봉 우뚝한 꼭대기를 사람이 행하도다."

만행 베풀고 중생 구제 매진을



해초 스님 태고종정

(상략) 또 한해가 흘러 지난 정해년 동안 거 해제일이 되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어디를 향해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부처를 찾겠다고 지난 결제기간 동안 정진수행을 열심히 하았는데 부처님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마음속에 내재된 집착(執着)의 그림자를 지워버리지 않고 분별(分別)의 세계를 떠나서 성공(性空)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 부처를 찾겠다고 산중에 들어앉아

시물(施物)을 축내며 허송세월을 한다고 하여 부처가 찾아지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문장(文章)의 기호(記號)에만 매달려 제경(諸經)을 섭렵(涉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부처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진법(眞法)은 여여부동(如如不動)하고 태연자약(泰然自若)하여 형의(形儀)나 언설(言說)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략)

해제기간동안 부디 세상에 나아가 만행(萬行)을 베풀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매진하여 부처님의 본분(本分)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진체자연진 인진실유리(眞體自然眞 因眞說有理) 진득진법 무행역무지(眞得眞法 無行亦無止)

자연 그대로의 진리가 참다운 진리요 이 진리로 인하여 만물의 이치가 설해지나니

이처럼 거짓 없는 참법을 얻고 나면 행동도 없고 또한 그림도 없네.

노고산 흥국사 불교대학 제7기 신입생 모집

약사기도도량 흥국사에서는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 근본교리, 불자예절, 기도, 참선에 이르기까지 불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내용과 아함경을 배우는 불교대학 제7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분

- 1) 개강일시
 - 기본교리반 - 2008년 3월 4일(화) 오전 11시 30분
 - 경전반(아함경) - 2008년 3월 7일(금) 오후 2시
- 2) 강의시간
 - 기본교리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 경전반(아함경)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
- 3) 교육기간
 - 기본교리반 - 2008년 3월 4일(화) ~ 6월 24일(화) 1년 과정 1학기 4개월
 - 경전반(아함경) - 2008년 3월 7일(금) ~ 6월 27일(금) 1년 과정 1학기 4개월

- 4) 교재 불교입문, 아함경
- 5) 수강료 각 반 4만원
- 6) 문의 및 접수 02)381-7970 중무소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203번지 www.heungguksa.or.kr

대한불교 조계종 약사기도도량 천년고찰 흥국사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

정토불교대학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정토불교대학이 2008년 3월 11일(화)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 개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지식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불자들의 삶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될 정토불교대학에서 법륜스님의 살아있는 법문을 만나보십시오.

3월 11일 - 12월 9일 매주 화요일 1년 과정, 영상강좌로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역별 당	문의처	교육시간	교육내용
매주 화요일	서울 정토불교대학 (주)	02)587-8993	오전 10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적 불교사상 -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되는 길 • 부처님의일생 - 인간보다 그 위대한 삶 • 근본불교 -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하는길 • 불교변천사 - 불교사, 사회 역사 변화와 불교변천
	서울 정토불교대학 (아)	02)587-8993	오후 7시 30분	
	부산동래 정토불교대학 (주/아)	051)557-2746	오전 11시 / 오후 7시 30분	
	마산 정토불교대학 (주/아)	055)247-8991		
	울산 정토불교대학 (주/아)	052)245-8995	오전 11시 / 오후 7시 30분	
	대전 정토불교대학 (주/아)	042)253-8990		
	청주 정토불교대학 (주/아)	043)284-5951	오전 11시 / 오후 7시 30분	
	광주 정토불교대학 (주/아)	062)511-8990		
	경주 정토불교대학 (주/아)	054)744-8990	오전 11시 / 오후 7시 30분	
	제천 정토불교대학 (아간)	043)644-8990		
	김천 정토불교대학 (주간)	019-308-2731	오전 11시	
	진천 정토불교대학 (아간)	017-530-4311		
	제주 정토불교대학 (아간)	016-739-7885	오후 7시	
	매주 수요일	부산해운대 정토불교대학 (주/아)	051)747-9997	
대구 정토불교대학 (주/아)		053)753-8993	오후 7시 30분	

* 가정법원의 영식으로 서울, 구리, 노원, 양천, 은평 / 부산 북구지역에서도 정토불교대학이 진행됩니다. (문의 : 서울정토외, 동래정토외)

정토불교대학 특전

- 초심자 입문교육
- 아외법회 - 사찰순례
- 특강수련
- 졸업식
- 졸업서
- 수행점심 및 법사 상담
- 봉사활동 및 환경·통일·복지특강

모집안내

- 접수기간: 2008. 3. 11일 화요일 까지
- 대상: 바른불교를 찾고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친 2매
- 동참비: 12만원(1년제)
- 문의: 각 지역별당 www.jungto.org

